

건강 칼럼

어느날 소변에 피가 나온다면 '혈뇨' 의심... 초기 치료 중요

4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처럼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도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변기가 붉은색으로 변한 것이다. 며칠 전부터 아랫배에 묵묵 수시는 통증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넘어갔는데, 혈뇨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니 몸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투명색이나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다. 물론 섭취한 음식이나 약물 등에 의해 소변의 색깔이 다르게 변할 수도 있지만, 별다른 음식 섭취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변이 붉은색을 띠고 핏덩어리까지 나오게 된다면 '혈뇨'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혈뇨란 말 그대로 소변에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섞여 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소변에 갑자기 피가 섞여 나온다는 것은 소변을

생성 및 배출하는 과정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처음 혈뇨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갑자기 눈앞에서 소변이 섞여 나오는 피로 인해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놀랄 수 있다. 하지만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는 우리 몸에서 이상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와 같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유현욱 유래한비뇨기과 원장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혈뇨는 특히나 요로결석부터 요로감염, 전립선비대증, 외상 등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혈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는 요로결석이 꼽힌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생성되고 배출되는 길인 요로에 돌이 생기거나 비뇨기 질환으로 소변의 원활한 흐름이 결석에 의해 막히면서 통증과 혈뇨와 같은 배뇨장애가 일어난다.

하지만 혈뇨는 원인이 다양한 만

큼 무조건 요로결석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뇨기과를 방문해 원인과 증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혈뇨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적 혈뇨'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 혈뇨'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뇨의학과 정밀 검사를 통해 문제가 나타난 위치와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초기에 빠른 대응 시 수술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도 대개요법이나 약물치료로 충분히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간혹 소변에 피가 나오는 등 혈뇨로 의심되는 증상이 지속됨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데, 혈뇨는 통증이 없더라도 요로염만 아니라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과 같은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관리해볼 필요가 있다.

사설

전북 도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논란

전북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탓에 민간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경쟁할 기회라도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다. 정읍의 한 주택 단지 주변의 공원 부지에는 시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든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정읍시는 이곳 수성동과 북면 일대 4만 제곱미터 일대에 내년까지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26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을 정읍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이 같은 일은 정읍시 뿐 만이 아니다. 익산시와 김제시, 장수군과 완주군도 3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각 시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전북의 60여 민간업체는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한다. 반면 시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사업비가 8천만 원을 넘으면 전라북도, 그리고 10억 원 이상이면 전국의 산림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림사업 대행위탁자인 산림조합과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충북의 민간 산림업체 1백여 곳이 정읍, 영동 등 3개 군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시군은 전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은 입찰을 해도 지역 업체가 맡을 가능성이 작다고 말한다.

참여를 해도 낙찰은 희박한 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한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은 공익성을 내세우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산림사업 수의계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이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흔히 소설을 '시대의 지화상'이라고 한다. 가공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더 진실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국내 어느 방송사가 수많은 소설 가운데 우리 시대를 가장 잘 그려낸 작품 50편을 선정했다. 그리고 매주 한 편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 교감하고 공감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시작에 앞서, 소설 50편을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는지 공개돼 다소나마 궁금증이 밝혀졌다. 해당 방송사는 대한민국의 문화평론가들에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을 물었다.

한국문화평론가협회 소속 평론가 150여 명에게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의 소설 가운데 10편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답변을 보내온 문화평론가는 모두 103명이다.

문화평론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그 자체로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첫 번째는

문학사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 두 번째는 시대적 맥락, 세 번째는 작품성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선정 기준으로 두었다.

평론가들이 추천한 작품들을 토대로 한국문화평론가협회 회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 작가의 작품이 여러 편 추천된 경우 그 작가의 작품 세 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을 골랐다.

같은 표를 받은 작품 중에선 문학적으로, 또 시대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작품을 추천하고자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50편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방송사는 앞으로 매주 9시 뉴스를 통해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을 한 편, 한 편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 문화 작가와 문화평론가 그리고 언론 매체와 독자가 함께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탐사선 '주노', 목성 위성 '가니메데' 뒷면 촬영



7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사진에 목성 탐사선 '주노'가 촬영한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의 어두운 뒷면이 보인다. 생안토니오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 스킷 볼턴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이 위성에 최대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탄불 인근 해안 뒤덮은 '바다의 콧물'



7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 보스탄지 해안에 해양 생물이 방출한 화합물로 이루어진 거대 해양 점액질이 뒤덮여 모래사장처럼 보인다. '바다의 콧물'(Sea Snot)로 불리는 이 점액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배출한 유기물질로 수온이 높아지거나 질소와 인의 농도가 떨어질 경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다의 콧물'로부터 마르마라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당국은 마르마라해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